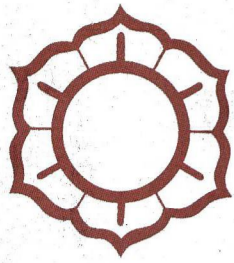


불교총지중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음마니반에  
흠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  
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 총지중보

2002년  
3월 1일  
금요일  
제32호

이 달의 종조법설

불법은 깨가 되고 세간법은 그림자다. 마음  
이 착해지면 현세가 곧 극락이요, 본체가 곧  
계되면 그림자도 곧아진다. 마음이 악해지면  
현세가 곧 지옥이다.

발행인 : 해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황의수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 종립학교 동해중 32회 졸업식

### 동해인의 자긍심으로 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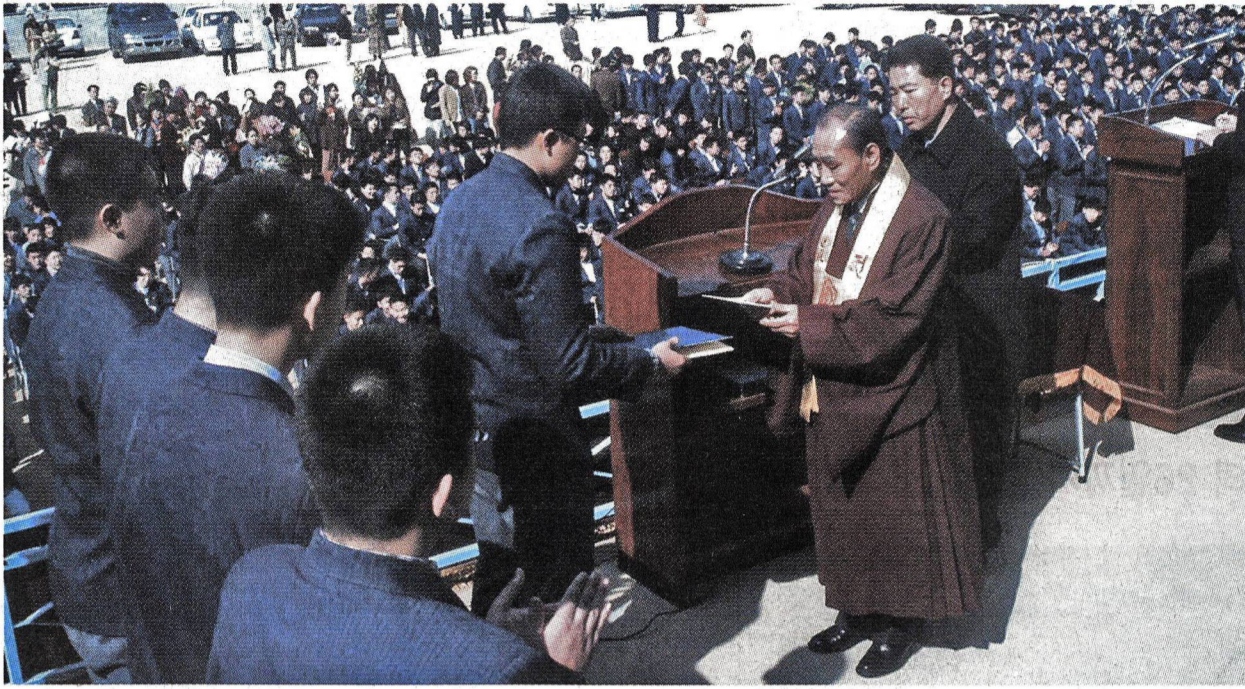
종립학교 동해중학교 졸업식이 지난 2월 16일 부산 동해중학교 운동장에서 수성 종립학교 이사장, 해암 총리원장과 정각사 경원정사 총동창회 김병훈 회장과 임원, 채현숙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옥연 학부모회장 등 500여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동해중학 풍물패의 흥겨운 사물놀이로 시작된 식전행사에서 새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에게 힘차고 역동적인 우리 가락을 선보여 많은 내빈과 졸업생들에게 신나는 한마당을 선보였다.

이번 졸업생은 전원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에 169명과 특수목적고에 16명, 실업계 고등학교에 94명, 기타 14명으로 총 293명이 졸업을 통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였다.

본 종립학교 이사장이신 수성정사님은 격려사를 통해 "졸업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알을 깨뜨리는 아픔이 있어야 창공을 나는 새가 될 수 있듯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동해인의 자긍심을 갖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승리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장인 해암총리



해암 총리원장이 졸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원장은 축사에서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학생이 되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갖도록 노력하고, 동해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간직하고 뒷사람에 대한 공경과 후배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다하여 진정한 동해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졸업생들의 힘찬 내레이를 축

하하였다.

강경종교장성생은 회고사에서 "하루하루는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새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었으며,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드는 종립학교인 동해인들

은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모범적인 학생으로, 사회에서는 역시 종립학교인 동해중학교 졸업생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학생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는 선후배의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보여 주었다.

이날 최우수졸업생에게 수여되는 이사장상은 3학년 7반 김건호 학생이 수상하였고, 학생회장 조현민(3-7), 부회장 김순호(3-8)군이 모범상을 수상하는 등 40여명은 대내외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불교총지중 장학금은 학교 특별활동에서 불교반 활동이 우수한 3-1 박해경, 3-2 박재영, 3-4 김기범, 3-7 최우영, 3-8 전규호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에 위치한 종립 동해중학교는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총 14,350명이 졸업을 하였고 불교 총지중은 1988년 9월부터 유지 경영하고 있다.

창조, 협동, 경애의 교훈과 어제를 반성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활지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의 삼위일체가 되어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 월드컵 대회 원만 성취를 위한 상반기 불공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49일 불공 입제

상반기 49일 불공인 진호국가 불사 입제가 지난 2월19일부터 4월 8일 까지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적 축제인 월드컵 행사와 부산 아시안게임등 국제적인 대행사가 겹쳐져 국가적으로 국운이 갈린 해에 진행된 상반기 진호국가 불공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발맞추어 국민화합을 이루는 계기를 닦는 불사이며 특히 자녀를 위한 불공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다.

법흥 총지사 주교는 49일 진호국가 불사 입제 법어에서 "나라를 위한 불공과 나의 마음을 닦는 불공과 자녀를 위한 지극한 마음은 서로 상반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일 될 여연기되어 있어 49일동안 지극한 마음으로 불공을 하면 국가적으로는 월드컵대회 원만 성취를 이룰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해탈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불공이다"고 했다.

불교총지중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49일 동안 진호국가 불사를 진행하



수호국계주 옴홈아사 진언중.

고 있으며 상반기는 자녀를 위한 불공과 하반기는 조상영식천도를 위한 불공을 함께 진행한다.

하반기 49일 진호국가 불사는 5월28일에 시작하여 7월15일 해탈절까지 진행되며 이때는 수호국계주(옴 홈 아호사)진언으로 복축을 향하여 하고 있다.

진호국가불사(鎮護國家佛事)는 나라

를 보호하고 부국 강성하게 하기 위해 하는 불사를 의미한다. 또한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뤄지는 모든 불사를 의미하며 단순히 여러 재앙과 위기를 막고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궁극적으로 온 세계가 정정한 불국토가 되게 만드는 불사를 의미한다.

## 총기 30년 결산감사

총지중유지재단, 법장원, 총리원 전체 회계 감사



쌓여 있는 감사 자료 앞에 있는 법장.

지난 2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 동안 총지중유지재단 및 법장원 총리원에 대한 총기 30년 결산감사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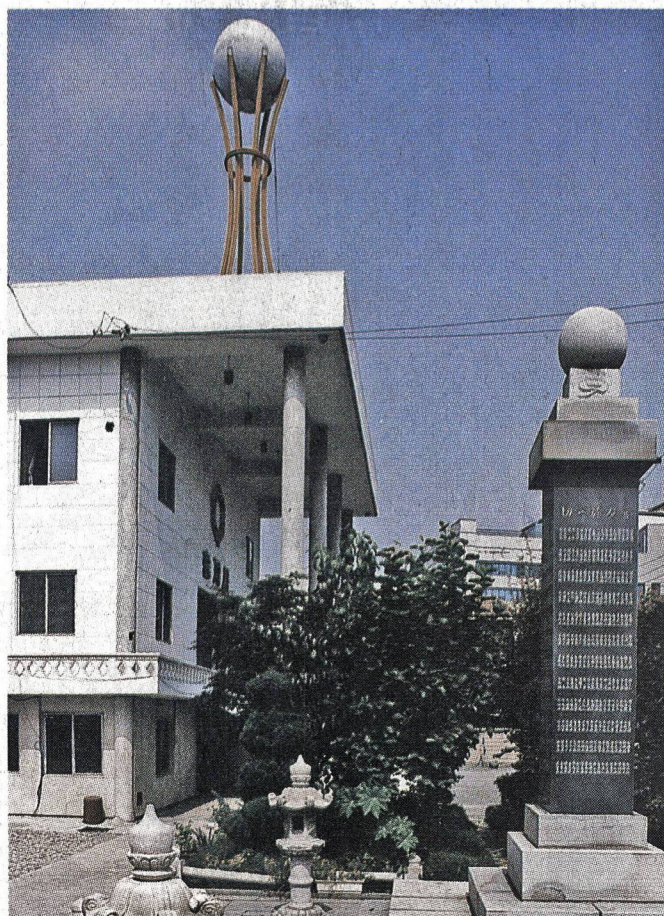
회음사 주교 법정정사와 국광사 주교 법성정사가 실시한 이번 정기감사에서 총리원유지재단과 총리원 감사에

서 총기 30년 사업의 계획에 따른 진행 정도와 회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기감사가 실시된다.

법장원은 만다라 제작과 만다라 도감, 밀교장경, 불교총전등 종단불사의 개소고 책자 발간작업현황에 대한 보고와 추진현황을 감사한다.

### 죽비소리

나라고 집착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몸이란 무엇인가 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냄새 맡아서 아는 코, 맛 등을 아는 혀, 닿음을 아는 몸, 마음이 머무는 곳(Hadaya vattu), 생명의 몸(Jivita rupa)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 된다. 생각해 보라. 눈이 있으므로 볼 수 있다. 보아서 아는 것을 존재하는 '나'로 생각한다. 그와 같이 귀, 코, 혀, 몸들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 보고, 닿아서 안다. 이것 역시 존재하는 '나'로 생각을 한다. 의지하는 몸이 있으므로, 이 몸을 의지해서 생각함이 생겨난다. 그래서 존재하는 '나'로 생각을 한다. 생명의 몸들이 있으므로 몸들이 썩지 않고 새로새로 끊임없이 생겨서 살고 있다. 이것 역시 살아 있게 해주는 몸을 '나'로 생각한다. -무이경 법문



## 불교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을 진언의 세계로 모십니다.

종령특정  
총리원장 해암

중앙총의회 의장 의강

중앙총의회 부의장 법공

총무부장 원성  
재무부장 지성  
교정부장 법등  
사회부장 대원

서울경인교구장 환수원  
충청전라교구장 법수원  
대구경북교구장 우송  
부산경남교구장 정정심



불교총지중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전화 : (02)552-1080~2 / 전송 : (02)552-1082 http://www.chongji.or.kr



# 사설

## 무너진 자존심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환희와 분노를 극명하게 교차시켰다. 남자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김동성 선수가 미국의 오노 영웅 만물기에 빠아픈 희생양이 됐다. 김동성 선수가 7바퀴를 남기고 선두로 나선 뒤 패속질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심판들은 김동성 선수가 오노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실격선수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금메달은 오노 선수의 차지가 됐고 중국의 리자준 선수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전명규 대표팀 감독은 심판들의 김동성의 실격 발표 직후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쇼트트랙에서 억울한 피해를 잇따라 당하고 있는 한국은 선수단 차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스포츠 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김동성 선수 자신도 안타깝고 심판들의 어이없는 판정에 분노를 느끼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 못지 않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금메달 하나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대회 주제 측의 태도와 미국의 언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우리 정치가들의 태도에 더 큰 분노를 느낀다. 러시아는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대통령까지 나와서 항의를 표시하여 주제측으로 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도자급 인사들의 발언은 참으로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IOC 위원이라는 사람의 어이없는 발언과 야당 지도자리는 정치가는 그릇 금메달 하나라고 말했다고 하니 저러한 사람들을 지도자 혹은 정치가로 뽑은 우리 국민들 참으로 불쌍한 국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비록 동계올림픽이 끝났더라도 그대로 덮을 문제는 아닌 것이다. 특히 저 오만 방자한 미국의 언론과 방송도 그냥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의 어떤 방송국 토코 쇼에서 보여준 김성동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금메달을 놓친 화풀이로 카우던 개의 배를 걷어차고 그리고 나서 그 개를 잡아먹을 것이고 하며 출연진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는 그 프로의 진행자의 모습에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았다. 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찬 그들로부터 우리의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줄 방패가 될 지도자는 이 나라에는 진정 없는 것일까.

## 이미지를 높여라

세계적인 브랜드 평가 기관인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삼성의 브랜드가 얼마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나 평가를 하였는데 52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하나의 상표는 그 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 상표로 인해 기업은 끊임없이 재수요를 창출하고, 우수 브랜드로 평가되는 상표의 가치에 따라 기업은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인간의 정신 가치를 중요시하는 종교와의 등가 비교는 적절치 못하겠으나 현대사 회에서 조차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에 기업뿐만 아니라 종교, 단체, 조직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교도 마찬가지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도 개혁불사를 통한 깨달음의 사회화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참여로 기존의 산중불교의 이미지를 벗고 대중과 함께 하는 불교로, 태고종은 불교무형문화재 전통복원과 보존을 천태종은 많은 사회복지로 신흥종단의 이미지를 벗고 있다. 또한 진각종은 몇 년전부터 [자엄(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 단일화 작업)]으로 젊고 활기찬 종단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종단의 역사가 30년이 된다. '시작이 반이다'는 옛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종단의 이미지를 개발해야 한다. 아직까지 불교총지중에 대한 불교도들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자리잡고 있지 못함은 사실이다. 불교총지중의 이름만 들어도 그곳은 정통밀교를 표방하고 진언행자들이 수행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불교총지중은 급박하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나를 찾는, 나의 본심을 이는, 자성을 찾는 안식처와 수행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 남북학해의 불바람을 불교계가 종단협 북한 흑한지역 방한복지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자강도 량강도 등 흑한지역 어린이 들을 위한 방한의류 2만벌과 내 의등을 2월 7일 조선불교도연맹에 위탁 전달하는 선적식을 가졌으며 2월 9일 인천항을 통해 남포항으로 전달하였다.

북한에 전달되는 총 3억원 상당의 방한의류 및 내의 2만벌은 불교총지중과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25개 종단의 모금액 1억8천여만원과 1억2천여만원의 남북협력기금으로 마련하였다.

종단협의회 조용준 기획과장은 "이번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불철에는 인민학교 어린이 급식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종단협의회는 작년 12월 남북 불교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무산되었지만, 이번 월동용품과 곧이어 전개될 불철 춘궁기 학교급식 지원



을 계기로 북측의 정식 초청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상호 협조와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것이라 전망된다. 더불어 우리측 대표단의 자강도, 량강도 지역의 지원대상 학교의 방문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답사를 통한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투명성 제고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남북불교교류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

된다. 지성(통리원재무부장, 정혜서원당주교)은 "금번 종단협의 방한복, 내의 대북지원과 불철 어린이 급식지원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냉각으로 치달는 남북관계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23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오는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일본에서 개최



제22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6일 하림각에서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1년도 결산보고와 2002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과 이사 및 감사선임에 대한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한일불교문화교류 제23차 대회를 오는 2002년 5월 22일~26일까지 일본 身延山 久遠寺에서 양국대표단이 참석하여 양국 불교학자의 논문발표와 토론등 불교학술교류와 일본불교의 성지인 久遠寺 참배 및 일본사찰 성지순례일정을 잡았다.

학술발표는 [명명의 충동을 초월하는 불법의 이념]이란 주제로 진행되어 양국의 불교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져 현대사회 병을 치유

할 수 있는 불교의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화예술교류로 제 2회 한일 불교연합합창단 공연을 오는 부산 아시안 게임 성공기원과 한일 양국 우호친선을 다짐하는 합동공연을 준비중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실무자들의 총회 준비부족과 허술한 계획서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한일 문화재조사사는 엄청난 대물사를 보여주시길 사업계획으로 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사업의 내실을 꾸리기보다는 일회적이고 관성적인 사업계획서와 상임이사 및 이사들의 연간회비를 올리는등 매끄럽지 못한 진행을 하였다.

## 역삼재가노인복지관 개관 3주년 행사 다채

이·취임식 행사도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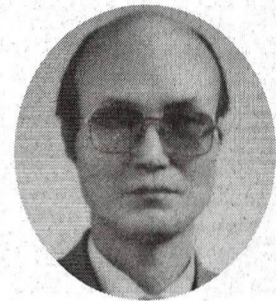
지난 2월 28일 본 종단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관이 개관 3주년 기념행사가 주간보호 이용자등 독거노인 40여명이 참석하여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26일로 3주년이 된 복지관은 그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실 및 행사와 독거 노인을 위한 밀반찬 배달과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여 노인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임식과 취임식이 같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여익구 관장은 "정통밀교를 표방하는 총지중과 인연을 맺어 미약한 힘이 종단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반성이 앞선다"며 이제 총지중은사회복지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고 또 현대 사회도 이러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가톨릭이나 개신교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에서 종단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지만 신종단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종단을 연구해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으면 한다"며 종단의 복지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을 부탁하였다.

이날 풍성한 음식으로 준비한 무료급식과 경로당, 유치원, 자원봉사센터등 20여곳에 기념떡 나누기로 의미를 더했다. 또한 복지센터는 지난 2월8일 설날 맞이 주민한마당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무의탁 어르신에게 음식과 물품을 후원하였으며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신 지역주민과 다양한 놀이를 가졌다. 신임 역삼재가노인복지관 관장에는 총무부장직을 맡아 실무를 총괄해오던 조영표 부장이 관장으로 취임을 하였다.

## 인터뷰



김동운 중앙신정회 총무

중앙신정회의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면이 있습니다. 작년 5월18일에 중앙신정회가 정식출범을 하였고 이후 6월12일 대구 개천사에서 중앙신정회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임원회의 속에서 회칙전문 및 회칙, 지회 분회 회칙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각 분회와 지회의 활성화 그리고 신정회원 명단과약을 약속하며 임원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중앙신정회 회장님의 건강상 회장직 사퇴로 공백기간이 계속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중앙 신정회 활동이 교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빠른 시일안에 중앙신정회 임원구성과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중앙신정회 회장이 공석이지만 부회장 및 다른 임원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직의 공석으로 인한 지회와 분회임원이 와해의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와해보다는 결집과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발굴하고 모시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인 지회 신정회를 복구하여 다른 지역 지회와 같이 활동을 벌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종단에서 중앙 신정회 활동에 도움은 주고 있는지요

중앙신정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와 스승님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신정회의 위상과 종단에서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통일되어야 하며 서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종단은 승단과 교도대중이 화합으로 이루는 공동

체이며 특히 우리종단은 화합을 강조하고있습니다.

사부대중으로 종단이 이뤄지나 진언행자로서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스승님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묵묵히 수행하고 정진하여 원경님이 세운 정통밀교의 정신을 가지고 수행하는 행자에 대한 존경과 예경은 두말할 필요가 없

다. 또한 신정회는 종단을 의호하고 종단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 중앙신정회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할 것이다. 종단발전되고 활기 넘친 종단으로 될 수 있다.

수행자는 수행에 전념하고 교도는 수행에 거리낌이 없도록 의호하고 종단은 이런 신정회를 발원으로 교화에 더욱 매진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모든일에 사리와 사욕에 휩싸이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이다.

혹시 각자님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에 종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도를 가고 이치에 맞게끔 논의하는 것이 강하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면 종단은 중앙신정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짧게 보면 스승에 대한 반감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길게 보면 종단 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심없이 중앙신정회 활동복원과 각자님들의 모인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잘못이 있다면 지심으로 참회를 하며 종단과 함께 하는 중앙신정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신정회가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종단과 스승님들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

밀레니엄 프론티어-삼성
www.samsunglife.com

# 안녕하세요! 해리, 달리, 별리에요

..... 고객의 내일을 지켜드리겠습니다. ....

삼성생명 비추미: 생명을 지켜주는 해리 사랑을 이어주는 달리 희망을 전해주는 별리

내일을 지키는 힘

삼성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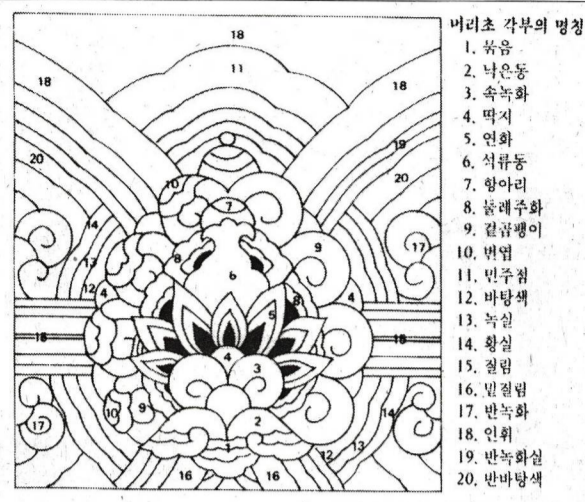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사찰건물 외벽장엄 <단청>

어느 산골 사찰을 가보고 도 심속 궁궐을 가 보아도 목조건물 외벽에는 어김없이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장엄한 것을 단청(丹靑)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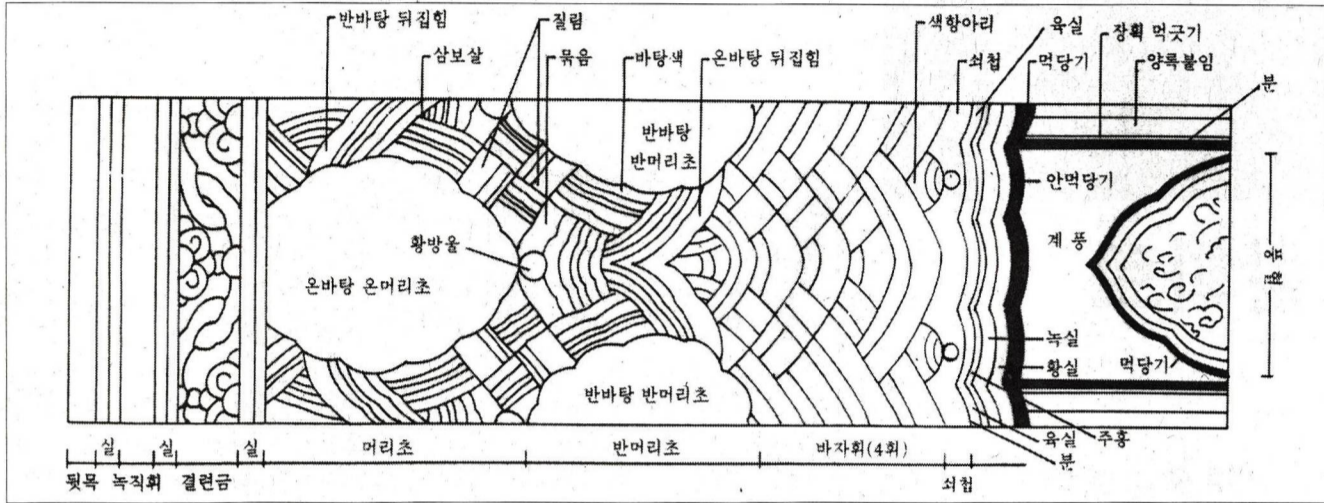
황색, 적색, 녹색, 청색 및 백색과 흑색 기타 여러 색을 써서 문양이나 그림을 색칠하여 내용물을 보호, 장식하는 목적으로 쓰였다.

단청하는 대상물은 목조 건축뿐만 아니라 석조 전조의 고분, 기명(器名), 공예품, 조형물 등에도 채색하여 사용되었으며 조



단청의 색상배열 (6취일 경우의 색상 배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대에는 흑백대비 또는 보색 대비에 의한 장식적 표현 수법으로 채색되어왔으나 고려시대에 이르러 화공들의 색조 구사법이 완숙되어 미적 조화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이때 추녀나 처마부분에는 녹색으로 처리하여 그늘진 곳의 명도를 높여서 전체조화를 이룩하는 발전을 보였다. 조선시대에는 외부단청은 밝고 감도가 높은 등황색조를 증가시켰으며 실내는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한 녹색으로 처리하여 장식의 명도를 높였으며



소물, 조각 벽면의 치장에도 쓰였다.

단청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목조건물에 많이 사용되었으

실내의 다 같이 선명 화려하게 채색하였다. 단청은 시대적으로 고대단청(삼국시대 초에서 통일신라 말까지), 중세단청(삼대단청-고려초), 근대단청(보통단청-조선조시대), 현대단청(구한말 이후 현대까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칠단청, 긁기단청, 모로단청, 얼금단청, 금단청, 깃은금단청으로 구분한다.

단청은 건물의 아름다움과 내구적 보호를 위한 화려한 몸단장이다

따라서 단청은 모방성 채색화로 보기에는 너무나 회화적이며 시대, 사회의 미의식에 순응하는 내용과 기법으로 발전되어 왔다.

단청이 일반 회화와 다른점은 첫째, 기법상으로는 색상과 농담도 단순화되고, 도안도 간소화되어 있으며,

둘째, 화법이나 운필(運筆)도 비교적 용이하게 된 것 셋째, 채색은 단순하고 회화보다 색상을 두껍게 칠하며 넷째, 외부공간에 노출되기 때문에 비교적 교착제는 많이 첨가하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건물에 나타난 단청의 문양과 채색을 기본으로 하여 전통적 문양과 배색기법을 정리하고 아울러 재료의 제조, 조제법과 단청실기를 계승하여, 앞으로의 건축도장술을 개발하고, 보다 아름다운 건축미를 창조하는 데 기여될 수

조선시대 단청의 색계열의 초빛 2빛 3빛의 색순서도

	1취	2취	3취	4취(생략)	5취(생략)	6취(마무리취)
초빛	장단	청색	황색	삼녹색	육색	석간주
2빛	주홍	양청	장단	양녹색	주홍	다자
3빛	다자	떡	주홍	하엽	다자	떡

시원은 지금...

청암종사 1주년 추선 불사

불교총지중 6대 8대 총리원장을 지내신 청암종사 1주년 추선불사가 지난 2월27일 인천지인사에서 유가족 및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교도들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해암총리원장은 '병생을 중생교화와 진인수행의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청암종사의 뜻을 계승하여 수행의 좌표로 삼자'고 하였다.



불교 에세이

불교는 정진의 종교

불교는 흔히 은둔 종교, 허무의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불교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희망 만드는 종교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정진론자(精進論者)라고 하실 만큼 정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진종교'라고 부를 만합니다.

불교는 신의 구원이나 우연을 근본적으로 배격합니다. 불교는 인간 스스로의 끊임없는 수행으로써 깨달음을 얻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구원을 바라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우연히 구원이 있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도 일면 정진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노력 없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그 순간까지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은 변해 가나니, 게으름 없이 힘써 정진하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중생의 괴로움이 비록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생기지만, 진리에 대한 무지마저도 초극할 수 있는 것이 정진의 힘이기 때문에, 중생의 괴로움을 초래하는 더 큰 원인은 게으름이기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는 우둔하기로 소문난 판타카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기원정사를 나서려는데 그가 큰 소리로 울고 있어서 부처님께서 다가 가 물으셨습니다. "판타카야, 너는 왜 울고 있니?" "부처님, 저는 사형이 가르쳐 주는 계승을 아무리 해도 외울 수가 없습니다. 형은 저더러 희망이 없으니 집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판타카의 손을 붙잡고 고요한 방으로 가서 빛자루를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쓸고 닦아라' 이 귀절만 외우고 생각하여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판타카는 '쓸고'를 외우면 '닦아라'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를 며칠만에 '쓸고 닦아라'를 외우게 되었고, 날이 가고 달이 지나 판타카는 드디어 이 말의 깊은 의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쓸고 닦아라'라는 말은 티끌을 없앤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무슨 깨달음이 이것으로 나를 가르치시는가. 지금 내 몸에도 티끌과 때가 있다. 나는 스스로 비유해 보자. 무엇이 없애는 것이며, 무엇이 때인가. 그 때, 번뇌는 때요, 지혜는 없애는 것이다. 나는 지금 지혜의 비로써 이 결박을 풀어 버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마음이 해탈하고 해탈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쁜 얼굴로 사죄하였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깨달았나이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쓸고 닦는 것은 지혜로 번뇌의 티끌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착하다 비구야, 네 말과 같다. 네 말과 같다."

지혜로 번뇌의 티끌을 없애는 것이

끝없는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은 '판타카야'

다. 보십시오. 정진시켜 장애를 갖고 있는 어리석은 판타카가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되는 것을.

단어 두 개조차도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그가 끊임없는 정진 끝에 성인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게으름과 방일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부자인 사람도 게으르면 어리석고 가난하게 될 것이고,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노력으로 지혜롭고 부유함을 일구어 나갈 수 있습니다.

(양동호 법사)

ILDONG 일동제약

주의하십시오!

“집안일 이거 보통이 아니네요 아내들 정말 피곤하겠어요!”

제 때 풀지 못하면 병이 되는 피로, 더 쌓이기 전에 풀어주세요

회사일이다, 스트레스다, 나만 피곤한 줄 알았는데 큰 마음먹고 해 본 집안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더 피곤한 일입니다. 빨래, 청소, 설거지에 이일저일로 종중중했더니 온 몸이 빠근하죠. 아게, 허리는 결리죠. 매일 집안일을 하는 아내는 오죽 피곤하겠어요? 혼자 바쁜 척, 힘든 척한 일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피로, 그냥 쌓아두면 병이 된다는데- 주부님들, 피로를 풀고 건강한 아내, 활기찬 엄마가 되어보세요.

활성형비타민영양제 아로나민골드로 아내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아로나민골드는 체내흡수가 잘되고 효과가 오래 지속되며 체내이용률이 높은 활성형비타민영양제- 신경과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 육체피로를 풀어주고 시신경과 모양체근에 스며들어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활성형비타민 B1, B6, B12에 비타민C, 토코페롤이 함께 들어있는 아로나민골드로 집안 일로 쌓인 아내의 피로, 회사의 일로 지친 남편의 피로를 풀어 줍니다. 신경통, 요통, 견봉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활성형비타민영양제입니다.

육체 피로, 눈의 피로, 신경통에 아로나민골드

피로, 눈의 피로, 신경통, 근육통(요통, 견봉 등) 소모성 질환, 병중·병후, 임신·수유기 및 노년기의 비타민 B1, B6, C의 보충

\* 아로나민골드의 비타민B1과 C는 수용성으로 체내 축적되지 않습니다.

■ 상담전화 080/022/1010(수신자부담) 02/526/3514

매일 2정식 복용하세요

아로나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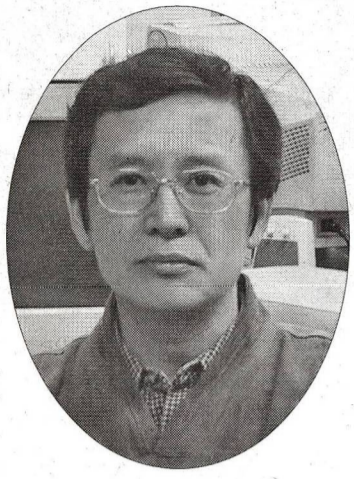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일동제약(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1 11층 (주)일동제약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일동제약(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1 11층 (주)일동제약



지상설법

원전대, 여래의 진실한 뜻 알고자 하나이다(願解如來眞實意)



대 현

〈불교총지중 법장원 수석연구원〉

오래된 고찰(古刹)이나 새로 잘 지은 절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다. 불자(佛子)로서 흐뭇하고, 또한 이렇게 좋은 곳에 절이 서 있다는 것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한편, 절의 건물들을 보며 부처님을 생각해본다. 우리 중생들은 과연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여 저러한 신심(信心)을 내었던 것인가?...

중생들은 돈을 목숨처럼 귀하게 생각하지만 자기 생각에 돈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흔쾌히 돈을 쓴다. 극락이나 천당에 간다거나 부귀나 건강 등 내어놓는 돈의 양보다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면 거래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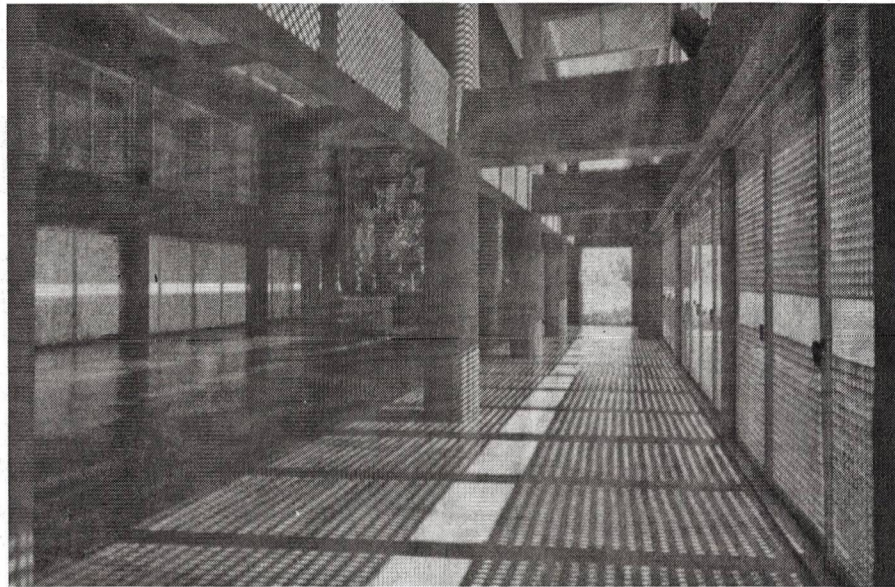
물론, 중생들의 가슴 가슴마다에는 나

름대로의 아픔이 있다. 그것은 괴로운 것이며 그래서 세속적인 괴로움들을 어느 정도나마 잊게 해주는 부귀와 건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께서서는 왕위(王位)를 포기하고 왕궁을 떠나 세속적인 부귀를 버렸으며, 상불(成佛) 후에도 다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신 적이 없었다.

인간이 재산이나 벼슬이나 명예가 없어도 행복(幸福)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으며, 오히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그 분의 진면목이며 불교의 위대성이다....

오욕락을 버린 분에게 오욕락을 충족시켜 달라고 목을 매어 달고 있으니, 거꾸로 가도 한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종교인들 마저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祈禱)다 무어다 해서 신도나 신자들의 오욕락에 불붙이기 대회를 하고 있

는 그 자체가 바로 공덕(功徳)이므로, 그 외의 다른 댓가를 바라는 것은 잘못이며 그 나머의 공덕마저 없애버리는 안타까운 거래의 심보이다. 공덕을 쌓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그 자신으로 하여금 청정한 마음을 가지게 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과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청정심(淸淨心)을 일으켜 오욕락을 끊어



행·불행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서 참다운 행복의 길을 찾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은 지독한 집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수행의 길에 있어서는 그것들이 장애가 될 뿐이며, 우리는 재관 위주의 삶

을 말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가장 필요하며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문해와 사해도 수행임을 알아야 한다.

골문·사·수의 삼해가 수행인데, 이와 같은 수행은 철두철미하게 자신(自身)의 문제이며 실천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언어와 문자가 부정되는 것이며, 불립문자(不立文字)가 교학의 무식(無識)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올바로 알고 있어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 결국 불교는 문(聞)이든 사(思)이든 수(修)이든 자기 자신의 실천의 문

제로 귀결되는데, 이 국면을 옛 선사(禪師)들은 그들의 제자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몸을 내뿜 의미'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을 때, 서강(西江)의 물을 다 마시고 오면 답(答)을 알려 주겠다고거나, 혹은 방(棒)이나 할(喝)을 하거나 기상천외(奇想天外)한 대답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들은 세속적인 부귀(富貴)만을 부처님께 빌 것이 아니라, 질(質)을 조금 높여 참된 불교의 교학을 통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쪽으로 불교를 실행(修行)해야 할 것이다.

바른 불교와 불교의 생활화로 미혹한 마음 깨치길...

니, 도대체 우리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중국 양 나라의 무제가 달마대사를 만나자 먼저 '집(朕)은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했으며, 경전을 간행하고 승려들을 권장했으나, 그 공덕이 얼마나 되었겠?'하고 물었다. 그러자 달마대사는 뜻밖에도 '공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양무제는 현세적인 이익에 크게 관심이 있었으므로 달마대사의 이 대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사실, 사찰을 건립하고 불상을 조성하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베푸는 것도 무주상(無住相)의 보시(布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시를 하고도 고통(苦痛)의 길로 역행하게 되는 것이다. 순수하고도 깨끗한 마음으로 어떠한 댓가도 바라지 않고서 하는 보시나 기도는 그대로 불교의 수행이며, 불·보살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사주(四柱)나 관상(觀相) 같은 것을 보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곧 재관(財官)을 위주로 하여 인간의

이 인간을 얼마나 추하게 하는가를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하루도 접하지 않는 날이 없다. 특히 출가수행자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다가 부모형제를 떠난 출가의 의미를 수포로 돌려버리는 경우까지도 더러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부처님(佛·如來)의 진실한 뜻은 무엇인가? 또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무엇인가? 제행(諸行)은 무상(無常)하고 제법(諸法)은 무아(無我)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체는 모두 '고뇌(苦惱)'의 것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고뇌는 업(業)과 번뇌에 인연하기 때문에 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과 번뇌를 지워나가는 길 곧 수행(修行)하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번뇌와 업을 지워 가는 힘이 반야(般若)이며, 반야를 증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상의 실상(實相)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야는 혜(慧)인데, 혜에는 문해(聞慧)·사해(思慧)·수해(修慧)의 삼해가 있으며, 수해는 문해와 사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교학(敎學)은 수해의 길을 표시하는 지도(地圖)이며, 문해·사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물론 이 경우의 교학은 불교용어의 나열이 아닌 제대로 된 교학

생활속의 밀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얼마 전 어느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요즘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과의 언쟁과 싸움을 종종 들었는데, 남의 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겪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실제로 친구의 집은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 주차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다.

어느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나가 보니 주차장 입구에 낯선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차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주차된 차에 연락처를 찾아보았으나 연락처는 없고 뒷사람을 기다

가.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산소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아침부터 견인차량을 요청하였다. 10시쯤 견인차량이 도착을 하여 견인순간 차주인이 왔다는 것이다.

친구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주차장 앞에 주차를 해서 차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처도 없고..." 차주인은 잘못했다고 했지만 2일동안 피해를 잘못했다는 이야기 한마디와 등치될수 있을까? 그리고 이야기는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속에서 사람의 도리, 기본, 양심, 도덕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 인간성 회

복에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불교에서 특히 밀교는 특히 모든 일체의 유정무정을 나와 다르게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부처

양심과 도덕성의 회복에 진언 수행이 최고

렸으나 출근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그냥 출근을 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니 '낯선' 차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고 친구는 다음날을 생각하여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명과 번호를 외쳐대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시골 아버지 산소에 가기로 한날이어서 어떻게든 차주인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끝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구청과 견인차량에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구청은 이미 퇴근하여서 연락이 안되고 견인차량에는 다음날 아침 9시가 넘어서야 출동이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할 뿐이다. 약속은 아침 6시에 되어 있는데 문제 해결은 9시가 넘어서 된다 하니 어찌 답답지 않겠는

하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불교에서 특히 밀교는 특히 모든 일체의 유정무정을 나와 다르게 보지 않는다. 모든 것이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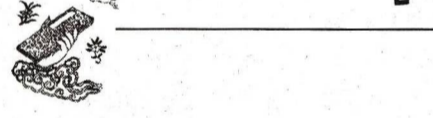
아닌게 없으며 부처의 인연 아닌게 없다. 법성의 한결같은 이치를 깨닫고, 나와 일체중생이 둘이 아님을 알고 일어내는 자비심, 중생의 괴로움이 그대로 자기의 괴로움인 줄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은 물질적 욕망을 좇아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에게 좋은 정신으로 남을 짓는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며 밀교 수행자는 특히 일체의 모든 행위가 부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어느 기업 광고가 생각이 난다

거주자 우선주차공간에 용지하나가 벽에 붙어있고 그 용지안에는 '주차하세요. 제 차는 저녁 8시에 들어옵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있는 광고이다.

마는만큼 보이고 느끼다



주(呪)

주법(呪法)은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기술이다. 주술(呪術)은 초자연적인 힘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적인 의례의 일종이다.

주(呪)에는 자타(自他)의 재역(災厄)을 없애는 선주(善呪)와 적(敵)에게 재액을 주기 위해 외우는 악주(惡呪)가 있다. 주(呪)는 범어 mantra(曼陀羅·眞言)의 번역이라고 하는데, 다라니(陀羅尼)나 비다이메(明)의 번역으로 보기도 한다. 또 만다

대일여래 법신의 진실된 언어

라를 밀주(密呪), 다라니를 총지주(總持呪), 비다이메 명주(明呪)로 번역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주술적(呪術)인 신앙이 아닌 즉 인도로 침입하기 이전부터 있었으며, 이것이 불교에도 영향을 미쳐 불전(佛典)에서도 여러 가지의 주(呪)를 들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도교(道敎)에서 행해지고 있었으며, 그것이 불교의 주(呪)와 서로 영향을 끼쳤다.



〈불교 총지중 자매결연 지정병원〉

하나한방 병원

대체의학접목-협진

하나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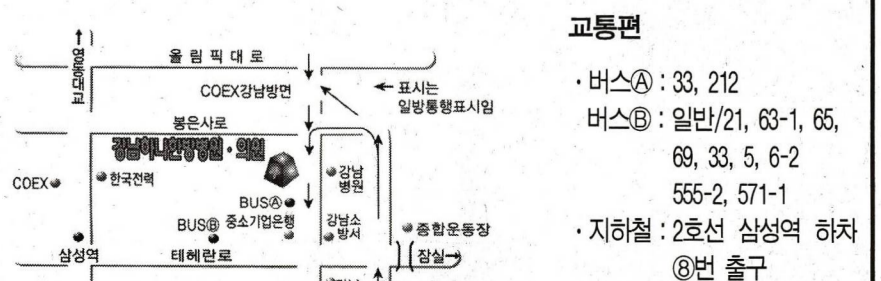
- 한방 제1과 : 병원장
중풍, 탈모, 성인병, 심장질환, 만성피로, 두통/어지러움, 불면/수면장애, 치매, 환병
한방 제2과
남성, 중풍, 수험생, 성장, 당뇨, 알러지, 간기능, 남·여 불임
한방 제3과
비만, 성장, 수험생, 부인병, 갱년기, 알러지, 만성변비, 피부미용, 소아
한방 제5과/정구과
통증/재활, 척추, 관절,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내과질환

- 신경정신과
대체의학(아로마테라피 등) 스트레스, 만성피로, 탈모, 불면/수면장애, 치매
기정의학 1과
비만, 만성변비, 일반질환, 일반검진, 종합검진
기정의학 2과
갱년기 호르몬, 알러지, 비염, 소아감기, 종합검진
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 보철, 구강외과

- 한방물리요법실
스포츠의학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동·도의학 협진
강남하나한방병원·의원
Hana East-West Integrative Medical Center
135-09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6-2
TEL: (02)569-1011~4
FAX: (02)563-5577

한·양방 건강검진센터 가동 중!!
직장인 및 학생을 위한 야간진료 실시 중!!
(비만, 성장, 수험생 클리닉)





종교포럼

대일경 주심품 삼구법문 연구



이정수

結語

지금까지 『大日經』 「住心品」을 중심으로 삼구법문의 구조와 理解, 삼구법문의 전개, 삼구법문과 瑜伽修行 등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이들을 통해서 삼구법문은 곧 密敎의 理論體系로서 뿐만 아니라 密敎의 實踐修行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密敎에 있어서 마음의 發展段階는 凡夫에서 부처로 차례로 向上해 가는 次第입과 동시에 逆으로 부처의 깨달음의 境地에 있어서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를 꿰뚫어 보는 向下的 次第이기도 하다. 『大日經』의 「住心品」에는 이와 같이 空이라든가 無自性이라든가 阿賴耶識이라든가 하는 통상의 佛敎敎說과 用語 說明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본래 眞言行者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상태를 비추어낸 것에 불과하다. 곧 大日如來의 本證인 自內證의 究竟은 言說을 超越해 있어서 부득이 方便으로 究竟을 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自內證의 現상으로서의 心을 中心으로 「住心品」에서 전개된 것이 소위 삼구법문이다. 삼구법문의 정형적인 틀은 菩提心爲因·大悲爲根·方便爲究竟이다. 이 가운데서 菩提心은 「守

護國界主陀羅尼經」의 信心·深般若·大菩提心·大悲心の 四種心으로, 또는 「菩提心論」의 發心·勝義·行願·三摩地的 四種心說을 形成하게 된다.

이와 같은 菩提心の 行相에는 行願, 勝義, 三摩地라는 三門이 있다. 이들 三門은 因地에 있을 때에 生起된 것으로 戒로 이루어진 것이다. 菩提心은 요컨대 三門을 戒로서 修習되어 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三門이 戒體가 되어 成就된 身體가 大毘盧遮那佛身이라는 말이다.

왜냐 하면 三摩地的 戒는 眞言法中 卽身成佛을 完成시키기 위해서 存在한다는 것을 明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菩提心이 大毘盧遮那佛身을 구하는 마음이라는 점으로 理解된다. 그러나 그 菩提心은 어디까지나 이미 完전하게 完成된 心으로서의 마음이다.

한편 菩提心은 160心を 超越한다는 의미로서의 大菩提心으로 理解 할 수 있다. 菩提心の 修習은 後世에 와서는 勝義의 菩提心の 修習과 世俗의 菩提心の 修習의 틀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勝義의 菩提心の 修習은 如實하게 自心을 알기 위하여 瑜伽를 행할 것을 말하고 있다.

世俗의 菩提心の 修習은 勝義와 空으로부터 일어나 悲를 가지고 衆生救濟를 향한 實踐面의 修習을 말한다. 勝義의 菩提心の 修習은 이전의 菩提心에 대한 句를 對象으로 한다. 菩提心修習에 관한 論書의 몇 가지를 참조하면 이 菩提心の 句는 外道を 破하고 佛敎 各派의 敎說을 배척하면서 唯識의 입장을 선양하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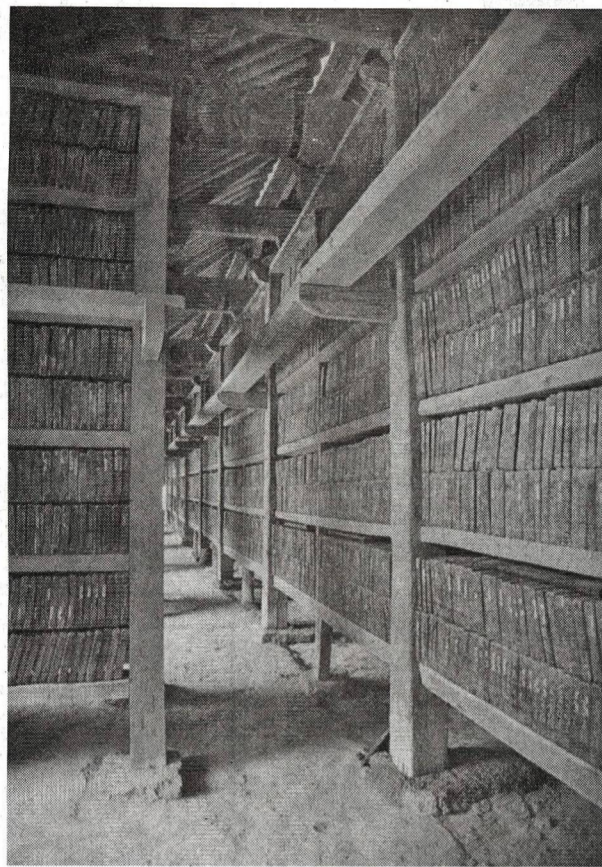
곧 「一切의 存在로부터 떠나」라는 것은 眞實存在가 實有하다고 執着하는 外道에 대하여 阿毘曇敎學의 立場에서 비

관하여 人無我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一切의 存在가 無實體하다는 것을 깨닫는 法無我平等性은 識만을 實有로 삼는다. 그러나 그 唯識의 立場도 究竟의 것이 아니고, 勝義로서의 心과 그 自體도 空하여 無自性하다고 깨닫는 것이다.

최후의 自心은 本不生하고 空性을 自性으로 삼는다는 말에 의해서 唯識의 立場에서 心의 實相이 開顯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菩提心の 句는 勝義의 菩提心の 內容을 정리함과 동시에 外道, 小乘, 大乘 가운데서도 中觀과 唯識, 그리고 점차로 高度化되어 가는 見解를 段階를 따라 가며 說하고 있다.

따라서 大菩提心은 一切智智의 의미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智의 세계는 方便이면서 동시에 그 業을 지니고 있지 않다. 大日如來의 究竟은 實在의 모습으로는 形象化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方便을 究竟으로 등장시킬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究竟은 絕對的 肯定性的 境地에 立脚해 있기 때문에 有情世界를 향



들어갈 수 있는 存在者는 有情界에 否定을 지니고 들어갈 수 있는 存在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行者의 心 뿐이다. 有情界의 存在하면서 行者는 自心의 否定性에 의해서 有情界를 否定하고 自己의 三密에 把握된 智의 世界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行者에 있어서 有情界도 또한 自己와 함께 大曼荼羅로 들어간다고 把握되는 것이다.

한편 三句의 方便은 大菩提心으로서의 菩提心과 究竟의 方便이라는 점에서 三句의 通稱으로서 菩提心の 本性을 覺知하여 證得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곧

각각하고 證得하라고 말한다. 이 瑜伽行을 三敎(三劫)이라는 段階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는 것이 心續生이다. 이상이 心續生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眞言門의 菩薩이 修行해야 할 菩薩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眞言門의 菩薩行이라 해도 이 眞言門의 究竟이 되는 行인지 혹은 究竟이 되지 않는 行인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三句法門의 하나로서 登場하는 菩提心은 大悲와 方便을 거쳐 窮極적으로 大菩提로서의 菩提心の 本性을 現顯해 주고 있다. 그런데 그 大菩提心은 一切가 完成되어 있는 密敎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등장시킬 수가 없다.

때문에 顯敎의 本來性을 象徴化하고 方便化 하려는 法門이 곧 三句法門이었다. 三句法門은 菩提心을 모든 衆生이 본래부터 具備하고 있는 因으로 삼아 그것을 現實에 投影하면서, 모두가 法身佛인을 認識하는 바탕에서 救濟의 當위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 當爲性으로서의 救濟와 깨달음은 密敎의 特性上 부득이 方便으로 밖에는 表現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世尊毘盧遮那는 諸佛의 大秘密은 外道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더욱이 이 究竟은 一切智智의 展開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三句의 因果關係는 方便이 菩提心の 因이 되고, 大悲가 菩提의 因이 되는 心의 展開科程度도 또한 如實知自心의 의미가 된다. 그리하여 菩提와 一切智智는 絕對的 無·空 속에서 心 스스로 心을 證하고 覺하는 存在方式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大菩提와 一切智智에 대한 覺知는 自心을 如實하게 아는 것이다. 그 自心이야말로 究竟을 現實化시키는 修行者의 行爲 그 自體이다. 따라서 그 行爲는 일반적인 顯敎와는 달리 儀軌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心 스스로 心을 證하고 覺에 이른다

하여 自己를 전개시키려는 否定의 契機를 지니지 않는다. 그 때문에 有情世界 자신이 智의 세계 = 大曼荼羅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有情界는 自己를 救濟하고 利益케 하며 安樂케 하는 因果를 覺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智의 世界에 들어가지 않는 한 有情은 스스로를 利益케 하는 因果를 覺知할 수가 없다.

『大日經』은 有情世界(眞實世界)를 一切智智의 展開의 반영에 있어서 스스로

의 世界에 포괄되어 있다. 따라서 그 智의 世界는 有情界와 직접적인 關係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有情界 쪽이 作用하여 智를 향해 나아가는 方式의 修行으로 등장해 있다. 이를테면 現象·現實世界의 卽自의 存在가 否定되고 본래부터 完成되어 있는 大日如來의 法身에 대한 卽身成佛의 感應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상계의 卽自의 存在方式를 否定하고 智의 世界 = 大曼荼羅 속으로

菩提心(自心의 本性이라는 心·菩提心을 自性으로 하는 心)이라는 것은 虛空相과 같은 것이고, 또한 無相한 것이며, 有爲와 無爲戒를 떠나고, 갖가지 造작을 떠나며, 六根과 六識에 의하여 認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菩提心(菩提를 自性으로 하는 心)을 10종의 比喻에 의한 觀法 「十緣生」이라는 眞言行者가 修行해야 할 소위 瑜伽行에 의해서 自心 속에서

정보 다이제스트

◆ 한반도 '따뜻한 겨울' 평균 1도 상승

우리나라의 온난화 현상이 여름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고 겨울이 덜 춥고 짧아지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기상청이 14일 밝힌 겨울철(전년 12월부터 2월 사이) 3개월간의 기온추이를 보면 1987년 이전에는 30년 평균기온인 평년기온(1.6℃) 보다 계속 낮았으나 87년부터 2001년까지 지구온난화현상이 두드러져 평년기온보다 대체로 0~2℃ 높은 온도편차를 보이며 20년 가까이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이상난동 현상은 전 지구적인 것이다.최근 몇년간 지구 전체기온은 1960년대 초에 비해 계속 0.5℃ 가량 높으며 우리나라는 1~2℃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국민>

◆ '사랑은 심장 건강에 유익하다'

세계심장연맹은 사랑에 빠질 경우 심장질환의 3대 요인으로 손꼽히는 스트레스와 의기소침,불안증세를 줄일 수 있어 심장질환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새 회장에 선임된 필립 폴 윌슨 교수(임피리얼대 흥부외과)는 "전세계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심장병과 발작 증세가 주원인이며 이는 에이즈 사망률보다

6배나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협심증 발병률이 높은 1만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가'라고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협심증 발병률이 아니라고 답한 경우의 절반 수준으로 밝혀졌다. <원년=연합>

◆ 암을 예방하는 14가지 생활수칙

- ① 변화있는 식단을 통해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 ② 채소 과일 곡물 등을 통해 섬유질을 충분히 먹는다.
- ③ 우유와 된장국은 거의 매일 먹는다.
- ④ 비타민 A, C, E를 적절히 섭취한다.
- ⑤ 과식하지 말고 지방분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는다.
- ⑥ 너무 짜고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한다.
- ⑦ 불에 직접 태우거나 훈제한 생선이나 고기는 먹지 않는다.
- ⑧ 부패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으로 의심되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
- ⑨ 술은 과음하지 않고 매일 마시지 않는다.
- ⑩ 반드시 금연한다.
- ⑪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을 지나치게 쬐지 않는다.
- ⑫ 1주 3일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되 무리하지는 않는다.
- ⑬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 ⑭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총지 등의 보감

어지러움증

긴장된 사열이나 회의도중에 갑자기 쓰러질 듯 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휘청하는 느낌, 머리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는 순간 확하고 어질하거나 핑 도는 느낌을 받아 본 경험들이 한 두 번쯤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어지러움이라고 하는데 특히 어지러움을 호소 하는 환자들에게서 보면 빙빙 돈다, 눈앞이 캄캄하다, 머리가 텅 비거나 멍하다, 몸이 붕 떠있는 듯하다, 균형이 안 잡힌다, 물건이 두께로 보인다 등과 같이 표현이 제 각각 나타나게 되어 진료를 하다가 보면 어느 질환이 원인으로 생긴 것인지 까다롭게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어지러움증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경험하는 증상으로 대부분은 가벼운 병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나 간혹은 아주 심각한 병이 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특히 주변이 빙빙 돌고 물체가 이중으로 보이는 것은 중풍과 같은 큰 질환이 올 수도 있다는 경고 인 셈 이다.어지러움증을 서양의학적인 면에서 보면 대체로 뇌의 이상(소뇌이상, 중양, 편두통, 뇌혈관장애, 편협

등), 귀의 이상, 내분비계 질환(당뇨, 갑상선 질환 등), 고혈압, 저혈압, 심장질환, 교통사고 후유증, 빈혈, 정신, 심리장애 등 40가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 기전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경우, 혈액 자체가 빈혈등과 같이 약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 평형을 유지하는 소뇌나 귀속의 작은 기관들의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간장의 風과 火가 腦部를 공격, 腎臟의 精액이 감퇴로 인한 뇌 精액 부족, 氣血부족으로 인한 뇌혈행 장애, 위장관의 노폐물(담음)이 뇌로 이행, 교통사고나 타박으로 인한 어혈(나쁜피)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다분히 내과적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왔다. 그렇기에 어지러움은 간혹 나타 나기는 하지만 너무 자주 나타나거나 피로나 두근거림, 두통, 땀이 나는지등 여러 가지 동반증상의 여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기혈을 보하거나 해야 하며 그

양 보아 넘기기에는 두려움이 남는 증상이다. <강남하나한방병원·하나의원 원장 김철호>



壬午年  
모든 교도 가정의  
해탈을 이루는  
희망의 한해가 되시길...

서울·경인교구장  
부산·경남교구장  
대구·경북교구장  
충청·전라교구장

총부부장 : 원송  
재무부장 : 지성  
교정부장 : 법등  
사회부장 : 대원



현목의 세상읽기

# 선과 악



인류가 원시성을 벗어난 이래 무릇 모든 종교, 도덕, 교육은 선을 가르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덕목 가운데 으뜸이다. 어느 정도 양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그 덕목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종교, 도덕, 교육은 사회적 산물이자 역사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종교, 도덕, 교육이 가르치고자 하는 덕목이 어느 시대에서는 지고의 선이었으나 이 선이 어느 시대에서는 낮은 것이 되면서 아울러 역사발전의 장애로 작용한다. 이를테면, 봉건제적 사회에서는 양반과 상놈의 신분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으나 자본제적 사회관계에서는 자유로운 신분으로서 얼마나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하는가 라는 점이 우선적인 덕목의 기준이 된다.

라이프로 모든 국가는 자신들을 닮아야 한다는, 강자의 오만이며 억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의 억지에서 보듯이,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그들의 덕목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기초하고 있을 뿐 전인류적 보편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적어도 전인류적 보편성을 띠려면 모두가 현상의 질서를 존중하지는 정도의 갖고 있어야 한다.

그나마도 없다면 선을 가장한 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을 따름이다. 부시의 발언은 '신의 이름'으로라는 핑계를 내걸어 제국주의적 침략을 자행했던 근대 서양인들의 아반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결코 선이니 악이니 하는 개념에도 끼지 못하는 '아반' 그 자체인 것이다. 뒷골목 광곽에게 선과 악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듯.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난 직후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하고 있다.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그네들이 진주하고 있는 구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여타의 국가보다 월등 많은 혜택을 누리며 남한에 머물고 있다. 지난 2월 19일 한국을 방문한 부시는 이런 미군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고 그를 환영한 김대중대통령은 '통일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노벨평화상으로 진 빛에 대한 보답인가.

진짜 미군이 있어 한반도에 전쟁이 억제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아직도 많은가 보다. 부시 방한 반대 시위가 고조되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그의 방한을 환영하는 시위도 있었다. 서로의 도덕성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준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 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한 명이라도 위협을 받게 된다면, 그 위협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차치하고, 미국은 베트남, 이라크에 이어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해 엄청난 화력을 퍼부은 전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미군은 전쟁의 억제력이 아니라 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시 방한 반대를 주장하던 어느 종교인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악'이라고 하였다. 남한에서 미군이 물러가라고 늘 외치던 이였다.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미군폭격장 폐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폐기 등에 늘 앞장 서 있다.

점잖게 사람들에게 제비, 박애를 가르치는 종교인이 불 때 이런 종교인은 '비종교인'으로 보일지 모른다. 비록 점잖지 못하더라도 종교가 진정 내세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행복, 그것도 꾀박받고 가난한 근로대중의 행복이 구현되는 극당정도를 일구려고 할 때 종교, 도덕, 교육이 가르치고자 하는 덕목 또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 본질적인 쟁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하여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도덕적 덕목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사회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비는 미덕'일 수 있지만 빈곤층에게는 그 미덕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상층의 부류는 사회적 재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한편으로는 근로대중을 잘 길들여 그들의 부와 명예를 영속시키는 미덕이 사회에 충만하도록 노력하지만, 하층 대중은 빈곤을 재생산하는 사회구조가 영속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전자는 자신들의 사회가 지속되는 것이 선이겠지만 후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회가 하루 빨리 해체되는 것이 선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있으면서 선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전혀 다르거나 혹은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는 상극의 상황에까지 이르러 물리적인 충돌도 불사하게 된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덕목은 대단히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에서는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을 현실적인 사회 관계에서가 아니라 '전인류적' 혹은 '도덕일반'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들은 기실 그 속내에는 위선과 기만이 포아리 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으로 우물쭈문 미국 대통령 부시는 올해 들어서자마자 아라비아반도의 두 개 나라와 우리가 반민권을 살아온 아름다운 한반도의 북쪽을 싸잡아 '악의 축'으로 규정, 언제든지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포고하였다. 이들 세 개 나라는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며 이들로 인해 국제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잡는 축이고 이 축에 교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국가는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였다. 곧 미국은 '절대선'이라는 꾀변에 다름 아니다. 자신들은 도덕적이며 인류적 보편성을 갖고 있는 나

**월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밑고**  
-반야심경 권 제6화-  
글:그림/정수일

바람이 분다. 네놈은 누구냐?  
나는 지나가던 검객, "미야모도무섭지"이다.  
그래, 분다.

핏이라! 그럼 내가 정녕 칼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칼자재보살"이란 말이나?  
미려한녀석, "관자재보살"님을 욕보이지 말라.  
욱!  
이놈아! 그러는 네놈은 관자재보살의 뜻이나 아느냐?

앗! 이럴 수가, 내 칼을 피하다니.  
"관자재보살"이란 관세음보살이며 범어 Avalokitesvara (아바로키티슈바라)의 번역이더라.  
범어 아바로키따는 관(觀)한다는 말이고 이슈바라는 자유자재란 말이니 이를 현장삼장께서 "관자재"라고 번역한것이니라.  
공공.. 그렇다면 나의 이 괴로움도 구제해 주지.  
공공.. 그렇다면 나의 이 괴로움도 구제해 주지.

허허허 마음으로 벌써 읽고 있었느니라.  
누굽니까! 떠드는 사람이, 이를 적겠어요.  
게섯거라! 내 칼을... 이망?

그대는 이미 "관자재보살"님의 구원을 받았잖은가.  
나는 검의 달인이지만, 불법을 깨우친 사람이 아냐. 내가 칼을 뽑으면 그대를 해치게 되. "관자재보살"님의 명호를 부른 것만으로 벌써 그대는 목숨을 건졌노라. 나 역시 불자인즉 무고한 살생을 할 수 없거든.  
"괴테"가 말하길 종교란 말하기 보다 행하는 것이라 했는데 각자님은 열심히 공부하는 안하고 잠만 잘건가요!  
끄응.. 전생에 약방아리였었나?

정수일 : OCTAGONP@HANMIR.COM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Off-line**  
개인, 가족, 단체, 기업

예금신청  
자원봉사, 물품 헌금, 스타사랑 펀드가입  
사랑, 가족, 실버

수혜자 결정

**On-line**  
Lovebank.or.kr 사이트 운영

예금주 구분 및 예금적립  
수혜대상자 선발  
자원봉사 대상시설 선발  
예금 및 프로그램 진행  
지출내역 공개 및 발송

사랑은행 운영진  
청소년 미래연구소

수혜자 선정 및 프로그램 협의  
예금지출 영수처리

수혜지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 연등축제 5월 12일 열려

## 불교문화 한마당 등 풍성한 축제



위해 포스터와 리플렛을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 언어로 제작하여 서울시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주한 외국인단체, 주한 미상공회외에 홍보를 마쳤으며 국제적 연등행사가 되도록 만반에 준비를 다하고 있다.

### 21세기 포교, 변해야 산다

#### 사회 변화에 조응한 포교방법 개발

불교포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열린토론회가 지난 2월27일 동산불교회관에서 진행되었다. "21세기 포교 변해야 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포교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과 신세대 문화의 이해와 수용 속에서 다양한 포교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정보매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유승무 중 앙승가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사회 변화에 따라 포교방법이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며 '환경신행' 혹은 '생명신행' 등과 같은 신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신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신행 프로그램을 철야정

은 검은 바탕에 연꽃그림과 화려한 색이 가미돼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불교위원회 담당자는 "특히 국제적인 행사인 한-일 월드컵이 열리는 올해 연등행사에서는 세계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모습과 가장 불교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이다"고 말했다.

#### 조계종 중정선출 내달 11일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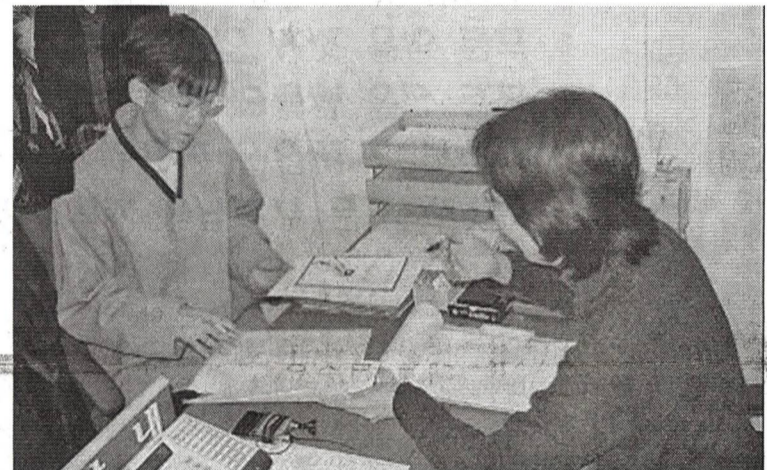
불교 조계종이 작년말 해암 종정의 임명으로 공식이 된 중정을 선출하기 위한 원로회의를 내달 11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등에 따르면 정대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원로들은 해암 스님의 49세(2월 17일)가 지난데다 선방안개가 오는 26일 끝남에 따라 중정 추대를 위한 본격적인 순서에 들어갔다.

한 관계자는 "물망에 오른 네 스님을 놓고 최근 원로회의 스님들간에 1차로 의견이 들었으며, 일단 만장일치로 후보를 추대한다는 데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 "불살생계를 지키련다"

####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불구속 결정...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불자가 세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오태양(27) 청년불자가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내 국가인권위에서 '양심적병역거부' 선언을 하였다.

오씨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살생"과 '생명존중'의 종교적 신념과 평화, 봉사의 인생관에 따른 양심적

행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행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주고 법적, 제도적 보장으로써 '민간단체봉사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후 오태양씨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와 조사를 받아오던 중 마침내 지난 2월15일에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2002년 2월15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성호 판사는 "개인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을 뿐 고의적인 병역기피 의도가 없고 도주의 우려

# 사찰 환경보호기구 내달 발족

## 사찰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최근 환경 분쟁을 겪고 있는 범어사, 회룡사, 내원사, 조계사, 미륵사 등 관련사찰들은 사찰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불교 환경대행기구를 결성한다.

불교 공동대행기구는 ▲사찰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적 장치 마련 ▲환경 문제 관련 토론회 개최와 환경정책 수립 ▲환경문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북한산 금정산 천성산 미륵산 등에서 발생한 환경현안은 물론 사찰 수

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단위 사찰에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공사로부터 사찰환경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불교 환경공동대행기구 발족으로 사찰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

로 보인다. 실제로 법원의 결정으로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를 위한 시민 종교연대의 농성철수와 금정산 범어사와 천성산 내원사의 고속철도 건설반대 운동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통영 용화사의 미륵산 케이블카 건설 반대운동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울 조계사도 인근 고층빌딩 건축과 관련해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불교환경대행기구가 발족할 경우, 공동대행기구가 조계종단 내에 설치돼 전국적인 단위로 환경문제를 파악하고 공동 대응하는 길이 열렸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올해 예정된 지방자치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 환경문제가 중요현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경정책 마련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 No Bush! No War!

#### 악의 축은 미국이 아닌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한반도는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미국의 자국이기주의는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구현실천협의회,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으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가 19일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과 전쟁반대를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각 종단의 성직자와 신도 2백여명은 "민족화해 방해하고 전쟁공멸 위협하는 부시방한하라" "MD강요 무기강매 중단하라" "전쟁확대 중단하고 남북강경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금까지

부시 미 행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한반도 정책은 그나마 테러 이후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온당한 처사라고 할 수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가장 많은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자신의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식의 폭력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면 누가 미국을 강압적 패권국가라고 비난하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선언문은 또 "그 동안 한반도에서 미국이 저지른 모든 과오와 잘못에 대해 정중하고 진지한 사과를 한국민에게 전해야 한다"며 "마땅히 부시 대통령은 사과의 진정한 표시로 한반도의 정책을 평화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이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인도 석가족 불교개종운동

#### 불가촉천민 개종에 이어서

인도의 석가족들이 "자신들은 석가모니의 후예"라며 자발적으로 불교개종운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성지가 몰려 있는 유포주의 상카시아, 이타와등지에 10개 지부를 결성해 석가족들의 불교개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YBS(청년불자사회)는 인도의 울 부처님 오신날인 5월26일 이후 비하르주 수도 파르나와맨프리, 이타와, 피르카와드 이이 따등지에 있는 석가족 집성촌을 순례하면서 불교개종 법회를 봉행한다.

지난해 부타클립의 주도로 불가촉 천민 1만여명이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한 이후 불교개종운동이 인도에서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해 불가촉 천민 1만여명이 불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힌두교 원

리주의자들은 불교가 천한 종교이기 때문이라면 비꼬았으나 이번 석가족의 불교개종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석가족들의 개종은 지난해 천민들의 개종과 달리 석가족들중에는 주(州)의 보건장관이나 고위 관료등 상층카스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불교가 태동한지 2600여 년이 지나면서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불교는 힌두교에 가려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인도에서 불교의 인구는 인도 전체 인구의 0.7%에 해당되는 약 700만명으로 극히 미약하다.

이번 석가족의 개종운동으로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불교의 깃발이 힘차게 오를길 기대해 본다.

# 김경현 성형외과

## Dr. Kim's esthetic plastic surgery

약 력 : -가톨릭대학 의학과 졸업

-강남성모병원 성형외과 스텝

-대림성모병원 성형외과 과장

수술전문 : 주름주사 및 레이저 박피

TEL 02-332-4456

FAX 02-332-4457

www.pskkh.pe.kr

진료시간 : -평 일 10:00~18:30

-토요일 10:00~17:00

-휴일 예약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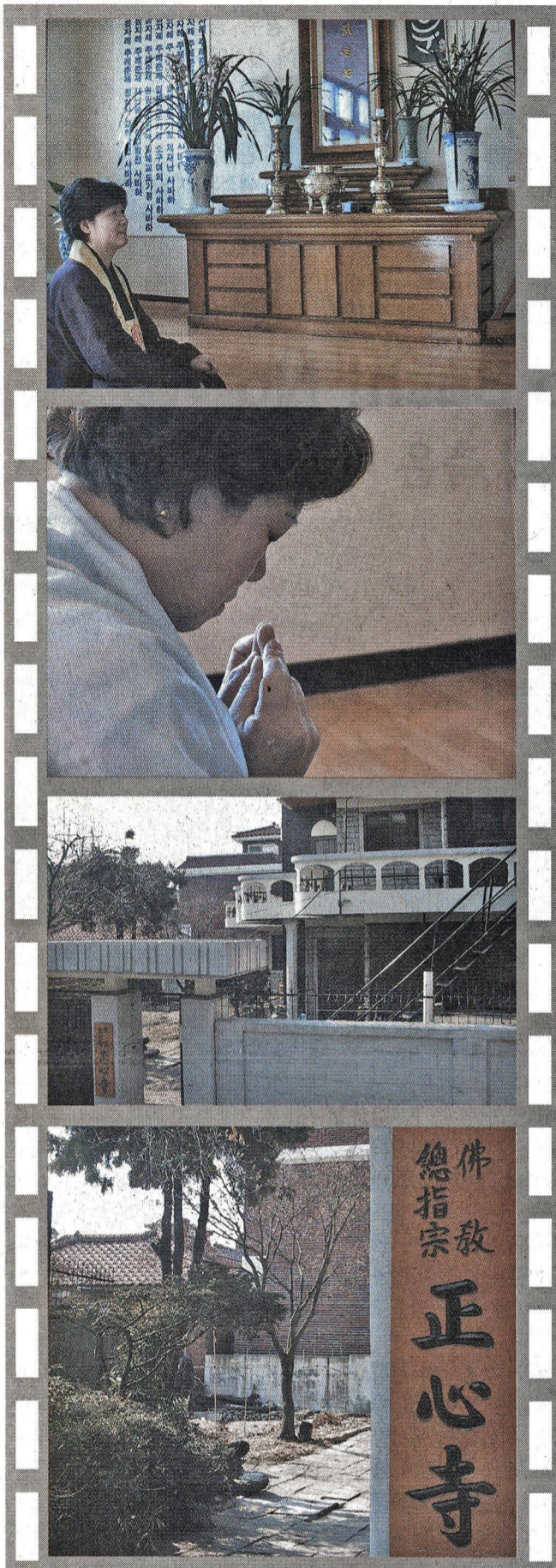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원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원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02)552-1080 팩스: (02)552-1082

## 벽에 틈이 나면 바람이 들고, 마음에 틈이 나면 마(魔)가 들어온다

### 봉황이 알을 품듯 애뜻하게 마음 닦는 곳 正心寺



신문발행일이 다가오면 신문 원고를 빨리 써서 종보를 제날짜에 발행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 허둥대기 시작한다. 이번호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은 정심사를 정했다. 지방이 아닌 서울에 위치한다는 편안한 마음과 또 시간의 촉박함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내가 처음 총지종과 인연을 맺어 총지사에게 출근할날 진일심 스승님(당시 시무)과 매일 얼굴을 맞대고 심부름하고 특히 처음 들어온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에 진일심 전수님에게 전화를 드렸다.

진일심 전수님은 한사코 취재를 허락하지 않았다. "나보다 더 훌륭하고 수행력 깊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취재해서 신문에 내야지 이제 갖 앞에서 깨어난 새끼 수행자인 나는 자격이 안된다"고 거듭 거절하셨다.

염치 불구하고 또는 꾸지람들을 각오로 무작정 정심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머칠째 추운 날씨가 모처럼 봄기운을 뽐내는 듯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다. 상반기 49일 진호국가 불사기간이어서 스승님을 찾아뵈었을때는 한참 불공중이었다.

서울 상봉동에 위치한 정심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렁이 날으는 봉황의 모습(飛凰形)이어서 알을 까기 위해 봉황이 막 날아와 앉는 모습을 하고 있는 곳에 사원이 위치하고 있다. 새 가운데 으뜸으로 치는 것이 봉황새이고 이런 봉황새가 알을 까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은 사원의 정기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곳에서 마음을 닦는 진언수행을 하면 좋은 일만 생기고 해탈을 예견해주는 곳이 정심사이다.

원정대성사의 해안으로 이런 곳에 밀교 도량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진언수행을 하는곳으로 안심마춤이라는 생각이 사원을 신중하려고 당시 진각종에 계실 때 대지를 구입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대지가 넘어가고 정통밀교 총지종단을 창종하시고 다시 대지를 구입하여 정심사를 세웠다. 이렇듯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심사가 세워졌으며 무엇보다도 원정대성사의 마음과 정성이 녹아있는 사원이다.

정심사는 총지종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으며, 특히 원정님은 이런 정심사가 의 수행과 인연으로 세워진 사원이다. 바를정·마음심·절사, 사원의 이름처럼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곳 또는 마음을 바르게 닦는 곳이다.

집안의 어른들이 일찍이 밀교와 인연을 맺어 진일심 스승님은 자연스럽게 진언을 접해왔다. 14세의 어린 나이에 진언과 인연을 맺은 진일심 스승님은 수행의 길을 걸어들었다. 그 당시에는 총지종 창종전기에 어찌면 총지종의 역사와 창종의 정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으며원정대성사를 비롯하여 여러 대덕 스승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진언수행에 순탄한 길만 걸었던 것도 아니다. 진각종에서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과 창종당시의 어수선했음으로 인하여 3년여 동안 불공을 하지 않은 시간이 점점 늘어만 가고 결국에는 발길을 끊었다.

"벽에 틈나면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에 틈이 생기면 마(魔)가 든다" 했던가? 진언생활에 나태하니 집안에 우환이 그치지 않고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문득 원정대성사님의 가르침이 다시 불공과 진언에 인연을 맺

었다. 하월곡동 진각종 본원을 세울 당시 원정님이 모든 공사를 하나하나 살펴며 한치의 흐트럼이 없도록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다.

당시 진일심 전수님 나이가 19세. 스승님은 한창 겁 없을 시절 원정님에게 질문을 하였다. "원정님 저는 그냥 있는데 주위에서 저를 지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양좋은 소리도 들리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니 원정님은 허허 웃으시며 "하늘을 보고 침을 뱉어봐라. 그 침이 어디로 가는지 알거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고 뒷짐을 하시며 여여히 자리를 떠나셨다.

그때의 가르침이 문득 진일심 전수님을 우매에서 깨우기 시작했다. 다시 벽문사와 총지사에게 불공을 열심히 하며 진언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본원인 총지사에서는 원정님, 복지화 전수님, 환당님, 정당님, 록정종령님, 효강님등 대덕스승님이 거쳐하고 수행하고 있어 시봉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복지화 전수님의 요청으로 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태어나 오래 살기도 또한 어렵다.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듣기도 어렵네.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해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일심 전수님은 총지사 처사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대덕스승님을 옆에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그때부터 시작된 고행 아닌 고행, 수행 아닌 수행은 진일심 전수님에게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다. 특히 열반스승님이신 복지화 전수님의 가르침으로 스승의 길을 가졌다 마음을 다졌으며 복지와 열반 스승님은 항상 "너는 스승으로 일하면서 내 얼굴에 욕될 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당부는 항상 몸조심 말조심 뜻조심을 하게 된다고 한다.

물론 몸은 힘이 들고 꾸지람도 많이 들었지만 당시 스승님들의 눈부른 수행과 호랑이같은 기개로 용맹정진하는 모습은 진일심 전수님의 가슴속 깊이 수행자의 상이 남아있다.

진일심 스승님은 후진양성과 인재양성 그리고 사람 냄새가 흠뻑 나는 사원을 만들고자 노력중이다. 불사중 가장 큰 불사는 사람 불사와 하였고이 - 이것도 원정대성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듯, 당시 원정님은 10여명의 학생을 손수 자비로 가르치는데 장학사업과 인재양성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 인재양성에 종단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하였다.

특히 스승의 교육을 유난히 강조하신다.

### 진일심 전수님은



정심사 주교 진일심 전수님은 일찍부터 밀교와 인연을 맺어 진언수행과 불공을 생활화하였다. 정식 스승 발령은 3년 전에 되었으나 그 진언수행의 깊이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 종단의 큰 스승이셨던 복지화 전수님의 가르침은 스승의 길을 견도록 하였으며 많은 큰 스승님을 시봉하였다.

전수님은 이제 살아생전 반듯한 사원을 자비로 건립하여 회향하고 싶으며 특히 복지화 전수님의 가르침을 스승의 길을 견도록 하였으며 많은 큰 스승님을 시봉하였다. 전수님은 이제 살아생전 반듯한 사원을 자비로 건립하여 회향하고 싶으며 특히 복지화 전수님의 가르침을 스승의 길을 견도록 하였으며 많은 큰 스승님을 시봉하였다. 전수님은 이제 살아생전 반듯한 사원을 자비로 건립하여 회향하고 싶으며 특히 복지화 전수님의 가르침을 스승의 길을 견도록 하였으며 많은 큰 스승님을 시봉하였다.

한 모습처럼 사원의 모습도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넘쳐 교도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사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앞에서 막 깨어난 듯 조심스럽게 교도들에게 진언의 묘의를 전하고 있다. 마치 큰 뜻을 품고 승천하려는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스승은 헌신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남의 과실을 지적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화합과 단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원정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

부처님이 강조하신 차별없는 세상, 평등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겨 실천하는 스승의 모습, 부처님 제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스승님은 인재양성은 사람됨됨이 사람냄새, 정을 유난히 강조하신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래도 사람구실 못하는 똑똑이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약간 어눌해 보여도 사람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하신다.

사원의 운영도 자비심과 환희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항상 따뜻한 모습을 하여 심신이 지친 교도들과 중생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심신을 안정시키고 재충전하는 곳이 되어야 총지종이 내세우는 생활불교와 불교의 생활화 실천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교도들의 노력으로 총지종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며 이후에 교도들에게 회향하는 사업을 하였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진일심 전수님은 생전에 각자님과 같이 작지만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시설이나 양로원 혹은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사원을 신중하고 싶은 것을 서원으로 삼고 있다.

##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의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다.

### 연혁

- 1998. 1 실직자 지원시설 개설(오뚜기모의터)
- 1998. 8. 14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법인 설립 결의
- 1998. 12 역삼 재가노인복지센터 수탁(강남구)
- 1999. 5. 29 사회복지법인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설립(보건복지부 인가)

### 노인복지사업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주간보호 사업  
재가복지 사업  
은빛축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노인 휴양시설 건립 추진

아름다운 노후 생활  
안정되고 체계적 노후보장  
남골당 건립 추진

###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재활지도 사업  
장애인 가족상담  
장애인 복지시책 연구  
지역사회 정착훈련

### 지역복지사업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후원 결연사업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 기타 목적사업

사회복지 캠페인 사업  
소식지  
사회복지 홈페이지 구축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후원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 교실 운영



### 청소년복지사업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캠프

###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리를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회원

-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좌) 이상
- 친조회원 - 부정기적 현금후원
- 단체회원 - 단체명 혹은 가족 후원
- 특별회원 - 일시불 후원

###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지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 지로번호 : 7668610
- ☞ 한빛은행 : 122-177171-13-104
- ☞ 예금주 - 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TEL. 02-3452-7485 FAX 3452-7486